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통계 서비스 현황

*Statistical Service on Low Fertility and Aging in Japan*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순 동경공업대학 교수

## 1. 일본의 국가 통계 조직

일본의 국가 통계조직은 행정 분야에 관한 통계를 성(省; 우리나라의 부에 해당)별로 작성하는 분산형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기본에 관한 통계조사는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 MIC)의 통계국에서 실시하는 반면, 각 성의 소관행정 업무와 밀접한 통계조사는 각 성 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 기구는 집중형 통계 조직과 비교할 때, 행정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소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통계조사의 기획·실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행정 부처간의 통계의 상호 비교성이 경시되기 쉽고, 통계조사의 중복이나 통계 체계상의 결핍을 가져오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 조직에 있어서는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통계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는 총

무성의 통계국이 관장하고 있고, 정부기관의 횡단적인 통계업무의 조정은 총무성 정책통관관(통계기준 담당)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통계조직은 국가가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의 실사를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통계의 통일성과 진실성을 확보하는 등 통계조사의 기반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縣;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해 통계 주관과를 설치하고 국가의 통계조사에 종사하는 통계 전임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통계 전임 직원의 배치 인원수는 2009년도 현재 전국에서 2,017명이며 중앙정부는 통계 전임 직원 배치비용으로서 약 116억 2620만엔(2009년도 당초 예산액 기준)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일본의 국가 통계 조직



## 2. 일본의 국가 통계 서비스

정보기술의 발달로 통계 정보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이용자의 요구도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행정의 정보화와 동시에 정보의 공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계국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각종의 정부통계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정부통계의 종합창구 e-Stat' 2008년 4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Stat(<http://www.e-stat.go.jp>)는 정부의 각부서의 통계 데이터의 열람이나 다운로드 외에 지방 자치단체별의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기능

등을 갖추어 정부 통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e-Stat는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National Statistics Center: NSTAC)에 의해 관리 운용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는 통계의 신뢰성의 확보와 통계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법인이므로 통계국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집계와 그 외 국세의 기본에 관한 통계조사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계국에서는 각종의 간행물과 함께 홈 페이지를 통하여 통계조사의 결과의 '통계 데이터', 통계법이나 표준 통계 분류 등의 '통계 제도', 아동과 학생 전용의 '통계학습사이트'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웹메일 뉴스에서는 주요한 조사 결과의 요약, 신착 정보, 소식 등을

그림 2. 정부통계의 종합창구 e-Stat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총무성 산하에는 통계연수소가 있어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통계도서관을 운영하며 공무원의 통계 연수와 일본통계연감을 비롯한 종합통계서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 3.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와 조직

일본의 정부통계의 기획 및 정부조직 내의 횡단적인 조정 업무는 통계국과 정책통괄관이 중심이 되어 관장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는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산하단체인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NIPSSR)와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JEED)가 각각 관련된 통계DB를 관장하고 있다. 그 밖의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에서 실시하는 후생복지 관련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조사통계는 <표 3>과 같다.

#### 1)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NIPSSR)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1996년 12월 후생노동성의 인구문제연구소와 특수법인 사회보장연구소가 통합하여 조직된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 정책연구기관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구와

사회보장의 관계는 한층 밀접해 지고 양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장래 인구의 정확한 예측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금, 의료, 개호, 보육 등 사회보장의 각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의 주요한 역할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2001년 1월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이 출범하게 된 것을 계기로 노동분야도 연구영역에 포함하여 인구, 경제, 사회보장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체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매년 ‘인구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구 통계를 공표하고 있고 장래 추계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여 장래 추계인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항목별로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관련기관이 공표한 데이터나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보를 편집한 것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와 세대에 관한 추계를 전국과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일본의 장래 인구추계’, ‘도도부현별 장래 인구추계’, ‘시군구별 장래 인구추계’, ‘일본의 세대주 수의 장래 추계(전국 추계)’, ‘일본의 세대주 수의 장래 추계(도도부현별 추계)’를 공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에 따른 인구동향의 큰 차이와 함께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회경제 계획과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 소지역별 추계인구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에서 정리하여 공표하는 저출산 관련 통계와 ‘인구통계 자료집’의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본의 저출산관련 제공 주요 통계지표**

중분류	주요 통계지표
인구의 동향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총인구, 인구증가, 성비 및 인구밀도</li> <li>- 인구의 연령 구조에 관한 지표: 1884~2005년</li> <li>- 연령별 인구 및 증가율의 장래 추계</li> <li>-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높은 나라</li> </ul>
출생에 관한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수, 보통 출생률, 및 합계 특수 출생률(1947~2004)</li> <li>- 성별 출생수 및 출생 성비: 1872~2004년</li> <li>- 여성의 출산력 및 재생산력에 관한 주요 지표</li> <li>- 주요국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 및 합계 특수 출생률</li> </ul>
결혼 및 배우관계에 관한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혼·재혼별 혼인수 및 보통 혼인율</li> <li>- 성별 생애 미혼율 및 SMAM(정태 평균 초혼 연령)</li> <li>- 성, 국적별 일본인과 혼인 한 외국인수</li> <li>- 주요국의 혼인율 및 이혼율</li> </ul>
사망·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사망수 및 사망 성비, 성별 주산기 사망수 및 비율</li> <li>- 특정 연령의 평균여명</li> <li>- 주요 선진국의 평균수명</li> <li>- 주요 사인별 사망수, 비율 및 비율</li> </ul>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유형별 일반 세대수와 장래 추계</li> <li>- 세대의 가족유형별 아이 인구</li> <li>- 외국인 세대의 가족유형</li> </ul>
노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상태별 인구 및 비율</li> <li>- 산업별 취업인구 및 비율</li> <li>- 성/연령별 고용 비율</li> </ul>
지역이동/지역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내/현간/시군간 이동수 성비 및 비율</li> <li>- 인구증가율 및 감소율이 큰 시읍면</li> <li>- 세계주요도시의 인구추이와 장래추계</li> </ul>
국적 별 인구 및 국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별 등록 외국인 인구</li> <li>- 성별 국적 이동에 의한 일본인 인구의 순증가</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교육정도별 인구</li> <li>- 성별 고등학교, 대학에의 진학율</li> </ul>
광역자치체별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체별 성별, 인구, 인구성비, 인구밀도, 인구증가율</li> <li>- 광역자치체별 생산연령</li> <li>- 광역자치체별 노년인구</li> </ul>

## 2) 독립행정법인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JEED)

독립행정법인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지원을 실시하는 조직으로서 ‘독립행정법인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법’(2002년 법률 제165호)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목적은 고령자와 장애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급부금의 지급, 장애자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고령자와 장애자의 직업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고령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직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나 고용 관리상의 과제 등의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이의 성과를 ‘공동연구연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실태를 조사하여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서’를 발행하였다. 특히 동 기구에서 2006년부터 매년 ‘단괴세대’의 취업과 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실시하여, 제 2차 대전 종료 후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의 제1차 베이비붐을 타고 태어난 단괴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자고용지원기구가 발행하는 ‘고령사회통계요람’은 고령자의 고용과 이에 관련된 고령화 사회의

실태와 향후의 모습을 전망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비교를 포함한 고령화 관련 통계를 참조할 수 있게 작성된 간편한 자료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산업, 취업구조, 생활패턴 등 고령화 사회의 특징, 고령자의 고용 및 생활 환경에 관한 것, 직장에서 은퇴하는 과정과 전후의 생활에 관한 것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표 2).

## 4.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통계 정비

일본은 2009년 3월에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이행을 위해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공적 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에는 사회적·정책적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한 통계의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인 「젊은이와 여성,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가의 실현」과 「국민이 희망하는 결혼과 출산·육아의 실현」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는 취업과 결혼·출산·육아와의 양자택일의 구조를 해소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결혼이나 출산·육아가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한 대응책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1)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를 가리키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세대임.

**표 2. 일본의 고령화관련 제공 주요 통계지표**

중분류	주요 통계지표
경제 일반	- 주요경제(노동) 지표의 추이 -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와 전망
인구	- 인구구성 추이와 전망 - 출생, 사망, 평균수명 추이와 전망 - 소속세대별 65세이상 세대인원의 추이
취업·고용	- 60세이상 노동자의 비율 - 60세이상 취업자가 많은 직업, 증가수가 많은 직업
노동 이동	- 전직율, 신규취업율, 이직율의 추이 - 고용형태별 전직 취업자의 비율
임금·노동 비용	- 성, 학력, 연령계급, 기업규모별 급여 현황 - 과거 3년간의 임금제도 변경의 유무 및 변경항목
고용 관리	- 고령의 종업원을 활용할 때의 문제 - 고령 노동자의 활용방침·고용현황
직업 능력·능력개발	- 직종에 맞는 능력과 연령 - 고용관리제도 도입별 사업소 수 비율
안전 위생	- 현재의 건강상태 - 건강법의 실시의 유무 및 내용(성, 연령별)
정년·고용 연장·퇴직	- 정년제의 실시현황(기업규모, 산업별) - 최고 고용연령 계급별 기업수 비율 - 65세이상까지 희망자 전원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
퇴직금·연금	- 공적연금가입자수의 추이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평균 연금월액의 추이
건강·복지	- 상병분류별 통원자율(연령계급별) - 요개호자 등의 인적상황
사회 보장	- 사회보장 급여자의 추이 - 고령자관계 급부비용의 추이
자산·생계비	- 저축 및 부채의 1 가구당 현재고 - 고령자 세대의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종류
자유시간·자원봉사	- 하루의 행동시간 - 자원봉사 활동에의 참가율
지방자치단체별 종업원수	- 노동력 인구, 노동력율 및 실업율 - 고령자 세대수
국제 비교	-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차이 - 인구고령화 속도에 관한 국제비교

표 3.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조사통계

조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기관</li> <li>- 조사빈도, 조사기간</li> <li>- 조사범위, 조사수</li> </ul>
국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5년주기, 최근조사(2005년10월1일 실시)</li> <li>- 조사 시점에 일본 내에 상주하고 있는 자, 전수(약1억2,776만명)</li> </ul>
인구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추계인구 월보 매월 1일, 추계인구 연보 매년 10월1일</li> <li>- 국세 조사에 의한 인구(기준 인구)를 기초로 그 후의 인구동향을 다른 인구 관련 자료로부터 분석하여 매월 1일 현재의 인구(전국, 총인구 및 일본인인구)을 산출, 「인구동태통계(후생노동성), 「재류 외국인통계, 「출입국관리통계」·국적이동(법무성) 그 밖의 지자체의 자료를 이용</li> </ul>
인구동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매년</li> <li>- 「호적법」 및 「사산의 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신고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및 사산의 전수를 대상</li> </ul>
생명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간이생명표 (매년): 그 해의 추계인구 및 인구동태통계에 근거하여, 이 기간에 있어서의 사망 질서를 사망율, 생존수, 평균여명 등의 생명함수에 의해 작성한 것.</li> <li>- 완전생명표 (5년 주기): 최근조사 제20회 완전생명표(2005년), 국세조사의 확정인구 및 인구동태통계의 확정 데이터에 근거하여 간이생명표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li> </ul>
인구동태사회경제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매년 테마별 조사</li> <li>- 임신 출산 및 출산직후의 육아문제, 이혼 가정 자녀 등(전국의 조사대상에 대해 조사표 우송)</li> </ul>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월보와 연보</li> <li>- 「주민기본대장법」에 근거하여 시읍면장(도쿄도 특별구의 구장을 포함)이 작성하는 주민기본대장에 의한 인구의 이동 상황을 파악, 전입자에게 관련하는 주소(시구 읍면 코드), 성별, 변경 정보(이동 사유, 이동 년월)에 의해 데이터를 작성</li> </ul>
사회생활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5년 주기, 최근조사(2006년10월20일)</li> <li>- 약8만가구, 세대인원수 약20만명</li> </ul>
국민생활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매년 6~7월(3년 주기 대규모조사, 최근 대규모조사 2004년)</li> <li>- 전국의 세대 및 세대원(세대표·건강표는 약26만가구, 약78만명, 간호 표는 약4,500명, 소득표·저축표는 약5만가구, 약15만명)</li> </ul>



〈표 3〉 계속

조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기관</li> <li>- 조사빈도, 조사기간</li> <li>- 조사범위, 조사수</li> </ul>
전국 가정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li> <li>- 1993년 이후 5년 주기</li> <li>- 가정동향을 전국규모로 파악하는 유일한 조사로서, 다른 공식 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출산, 육아, 노부모의 부양, 개호를 시작으로 하는 가정의 제기능의 실태, 변화요인을 파악하고, 저출산 고령, 특히 저출산에의 대응을 위한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후생노동 행정 시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 국민생활기초조사가 실시된 조사지구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300조사지구의 전체세대(약 15,000세대)</li> </ul>
전국소비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5년 주기, 최근 2006년 9월~11월</li> <li>- 모든 시 및 약460개 읍촌의 2명 이상의 일반세대와 단신자 세대 약6만가구</li> </ul>
가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매월</li> <li>- 약168의 시읍면의 2명 이상의 일반세대와 단신 세대, 약8,700가구</li> </ul>
노동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성통계국</li> <li>- 매월 말일(취업 상태는 월말까지의 1주일)</li> <li>- 조사 구내의 추출 조사 세대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인 자, 약4만 대(취업 상태는 15세 이상인 약10만명)</li> </ul>
여성고용 관리 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고용 균등·아동가정국</li> <li>- 매년 10월 1일</li> <li>- 13대산업(2003년 전은 9대산업)의 종업원 30명 이상 기업규모 약10,000기업(2005년)</li> </ul>
출생 동향기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통계협회·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li> <li>- 5년 주기</li> <li>- 부부조사: 결혼 및 부부의 출생력에 관한 실태와 배경 조사, 전국의 아내 연령 50세 미만의 부부</li> <li>- 독신자 조사: 독신자의 측에서 본 결혼, 가족, 아이, 남녀관계에 관한 의식, 실태 조사</li> </ul>
세대 내 단신자에 관한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li> <li>- 2000년 6월 1일</li> <li>- 젊은층의 만혼화·미혼화의 주된 요인으로서 주목되고 성인 미혼자의 동거에 초점을 맞춰, 해당 세대의 경제상황과 해당 개인의 취업 상황과 가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li> <li>- 전국 18세 이상의 미혼 친족이 동거하는 세대와 그 본인, 조사표 세대포 3,552(회수율 88.8%), 개인포 4,604(회수율 92.5%)</li> </ul>

〈표 3〉 계속

조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기관</li> <li>- 조사빈도, 조사기간</li> <li>- 조사범위, 조사수</li> </ul>
21세기 출생아 종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매년 12월</li> <li>- 21세기의 초년에 출생한 아이의 실태 및 경년 변화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의해, 저출산 대책 등 후생노동 행정정책의 기획 입안, 실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li> <li>- 2001년 1월 10일부터 1월 17일 미쳐 7월 10일부터 7월 17일의 사이의 출생 아이, 조사표 배포 제1회 53,575(회수율 87.8%), 제7회 40,598(회수율 90.6%)</li> </ul>
21세기 성년자 종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매년 3월</li> <li>- 21세기의 초년에 성년인 사람들의 결혼, 출산, 취업 등의 실태 및 의식의 경년 변화의 상황을 파악하여, 저출산 대책 등 후생노동 행정정책의 기획 입안, 실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li> <li>- 2002년 10월 말의 시점에 20~34세이었던 전국의 남녀 및 그 배우자 중, 국민생활 기초조사의 조사지구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700지구내의 해당 남녀를 대상. 2002년 1회 남녀조사표 35,448(집계율 82%), 2008년 7회 남녀조사표 20,203(회수율 76.4%)</li> </ul>
중노년자 종단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매년 11월(2005년부터 시작)</li> <li>- 중노년자의 생활에 관한 계속 조사로서, 베이비 붐 세대를 포함한 전국의 중노년자 50~59세 남녀, 약2,500지역 내의 약32,000명 (2006년)</li> </ul>
단과세대의 취업과 생활에 관한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li> <li>- 2006년부터 매년</li> <li>- 제2차 대전 종료후 제1차 베이비붐세대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단과세대의 취업과 생활상황의 실태와 향후의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li> <li>- 조사 샘플 수 2,000여건</li> </ul>
고령자 취업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 대신관방통계 정보부</li> <li>- 3~4년에 1회 (최근 2004년 10월 실시)</li> <li>- 14대산업 종업원 5명이상 규모의 사업소의 55~69세의 고령자, 약만2000사업소 약3만명</li> </ul>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li> <li>- 2008년 2~3월</li> <li>-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은 65세까지의 고용 확보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51명 이상 규모의 사업소 30,000개소</li> <li>- 65세 이상의 상용 노동자가 3명 이상 재직하는 51명 이상 규모의 사업소 27,324개소</li> </ul>

되는 통계의 준비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조사항목, 표본규모, 통계체계 등에 대해 향후 다음과 같은 통계의 준비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표 4).

**표 4.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 정비내용**

정비부처	정비내용
총무성	배우관계, 결혼 시기, 자녀수 등의 저출산 관련 항목에 관해서 안정적인 지표를 얻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의 협력을 얻어 기존의 통계 조사의 재구축 혹은 신규의 통계 조사의 신설 등 대규모 표본 조사에 대해서 검토한다.
	「주민기본대장인구이동보고」에 있어서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를 활용하고 연령별이나 광역지자체 단위보다 더 작은 규모의 지역별 이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지방 공공단체와 협의한다.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하는 「인구·인구동태 및 세대수」에 대해 지방 공공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자료 집계의 총실도(성·연령별 인구, 세대주의 성·연령·세대인원별 세대수, 세대주와의 관계별 인구, 성·연령별 국적 이동수 등)를 검토하고 작성 시기(현행은 3월말)에 대해 재검토한다.
	가계수지를 파악하는 각종 통계 조사에 있어서, 개별화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 단신세대 수지실태조사에 있어서의 모니터 방식의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다음, 가계수지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의 모니터 방식의 채용에 관해서 검토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관한 통계의 정비의 관점에서, 「사회 생활기본조사」에 NPO,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에 관한 조사 항목이나 집계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후생노동성	세대에 의한 차이의 검증을 위해 「21세기 출생아의 종단 조사」 및 「21세기 성년자 종단 조사」에 대해서 새로운 표본의 추가 등을 검토한다.
	「인구동태조사」에 있어서의 집계의 총실도(출생·혼인·이혼의 월별, 연령·생년별의 집계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국민생활 기초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표 및 저축표를 이용한 조사 결과가 광역지방자치체별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사표의 표본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
총무성 후생노동성	취업(취직 및 이직의 상황, 취업 억제 요인 등)과 결혼, 출산, 육아, 개호 등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는 관점에서 관련된 통계 조사에 필요한 추가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총무성 국토교통성	주택·토지에 관한 통계체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작업은 ①주택·토지통계조사와 국제조사와의 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②주택·토지통계조사에의 주거생활 종합조사의 통합을 검토하고 ③주택이나 토지의 외형면뿐만 아니라 가격, 구입자, 세대의 수입 구조 등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 5. 시사점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와 독립행정법인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에서 각각 관련된 통계를 관장하고 있다. 저출산관련 통계로는 인구동향, 출생동향, 결혼 및 배우자, 사망수명, 세대, 노동력, 지역이동/분포, 교육 등의 통계DB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관련 통계로는 경제일반, 인구, 취업/고용, 노동이동, 안전위생, 정년연장/퇴직, 퇴직금/연금, 건강복지, 사회보장, 자원봉사 등의 통계DB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대응한 통계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배우자관계, 결혼시기, 자녀수, 취업/이직, 육아, 개호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충실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공급의 부족을 해결하며 새로운 위험에 처한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국가의 주요한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가족과 아동에 대한 국가 비교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OECD는 최근 Family database를 개발하여 회원국의 가족정책 성과와 가족관련 지표들을 구축하여 회원국간 지표의 분석내용을 웹상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에서 PDF파일과 엑셀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통계생산기관에서 각각 통계DB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과 보건복지부의 정책통계포털(stat.mw.go.kr)에서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KOSIS와 정책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로는 건강보험, 국민건강영양조사, 사망원인, 영아사망조사, 사고, 사회조사, 생활시간조사,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경로연금수급자 현황, 국내입양현황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등록장애인현황, 보육실태조사, 소년·소녀 가장세대현황, 장애인실태조사, 전국노인실태복지욕구조사,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통계DB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일본의 고령화 관련 통계와 OECD 요구통계의 생산 및 제공체계의 구축은 물론 생산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관련 통계의 통합관리 체계의 구축과 KOSIS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포털내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계DB를 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